

전기로 만드는 행복

서북공감

2023
MAY · JUNE
VOL.113

COEXISTING

SPECIAL THEME 상생



한국서부발전 사보 서부공감

2023 5+6월호(통권 113호)

발행인 박형덕
기획 정래현, 김정호, 김예지
발행일 2023년 5월 17일
발행처 한국서부발전 커뮤니케이션실
TEL. 041-400-1298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중앙로 285

기획·디자인 BeOK
TEL. 02-2038-2369

인쇄 (사)한국장애인상생복지회
TEL. 02-2644-2911

Photo by ARTEM KNIAZ on Unsplash

INDEX

VOL. 113 2023 5+6월호



SPECIAL THEME ‘상생’

- 4 **여는 글**
더불어 사는 삶의 행복에 대하여
- 6 **느끼다**
우리는 함께일 때 더 행복합니다
- 8 **들다**
챗지피티 시대, 사람만의 일은 무엇일까
구본권 한겨레 기자·사람과디지털연구소 소장
- 10 **만나다**
나를 존중하는 일이 곧 상생을 향한 첫걸음
방승호 모험상담연구소 소장
- 14 **걷다**
상생의 도시 인천을 걷다



WP STORY

- 18 **여는 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선택
- 20 **툼아보다**
오만 태양광 사업 수주 성공,
10년의 노력이 결실을 맺다
한국서부발전 해외신사업처 해외사업실
- 26 **아우르다**
Talk! Talk! 함께 만들어요, 상생 파트너
- 30 **달리다**
제20회 전기사랑 마라톤대회

WP+

- 32 **WP CONTEST**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시선을 사로잡다

- 34 **WP ISSUE**
구미 천연가스발전소 착공식 현장



- 38 **WP NEWS**

- 41 **캠페인**

- 42 **이벤트**

상생 相生

더불어 사는 삶의 행복에 대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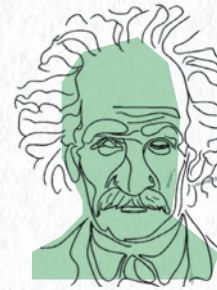
우리는 함께일 때 더 행복합니다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
 사람들 사이의 좁힐 수 없는 간극을 시인 정현중은 섬으로 비유했다.
 그러나 마침내 우리가 그 섬에 가 닿을 수 있다면
 그래서 혼자가 아니라 더불어 함께일 수 있다면, 그 순간 우리의 삶은 비로소 충만해질 것이다.
 적자생존이 아닌 함께할 때 느낄 수 있는 행복에 대해
 현자賢者들은 이렇게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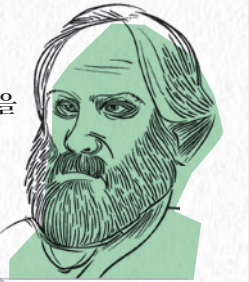
WISE SAYING 01

세상을 보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모든 만남을 우연으로 보는 것과
 모든 만남을 기적으로 보는 것이다.
 - 아인슈타인



WISE SAYING 02

인류와 동물의 긴 역사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협력하고 임기응변하는 것을
 배운 자들이 결국에 우세했다.
 - 찰스 다윈



WISE SAYING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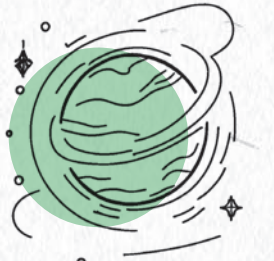
아보가드로수*가 이렇게 크다는 것은
 너와 내가
 우리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마주 보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너와 내가
 한 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내 허파에 들어갔던 공기가
 1초 후에 너의 허파 속으로 들어가고,
 1분 후에 너의 핏속으로 들어가고,
 1시간 후에 너의 살 속으로 들어간다.
 나의 피와 살이
 너의 피와 살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모르고 있지만
 모든 생명체는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
 - 권재술 <우주를 만지다>



*아보가드로의 수
 물질 1몰mol에 들어 있는 입자의
 수로 6.022 곱하기 10의 23승.
 연필 12개를 1다스, 마늘 100개를
 한 접이라 하듯이 아보가드로의
 수만큼 입자의 묶음을 1몰이라 한다.

WISE SAYING 04

다른 사람의 세계를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우리의 세계를 넓힐 수 있다.
 - 슈뢰자 라스카사츠



WISE SAYING 05

개체 하나하나를 따로 떼어 놓고 보면 쥐도 우리 고양이보다 인간,
 돼지, 개와 하나도 다를 바 없어. 특별히 더 좋지도 나쁘지도 않아.
 부모가 주입한 가치들로 형성된 정신세계가 우리와 많이 다를 뿐이야.
 그들이 믿는 가치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우리가 깨닫게 해줘야 해.
 대결이 아니라 협력이 우리 모두에게 장기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걸
 받아들이게 해서 생각을 고쳐먹게 만드는 거지.
 - 베르나르 베르베르 <행성>

WISE SAYING 06

빨리 가고 싶으면 혼자 가라.
 하지만 멀리 가고 싶다면 함께 가라.
 - 브르키나파소 속담



WISE SAYING 07

우리는 모두 여행자이며, 타인의 신뢰와 환대를 절실히 필요로 한다.
 여행에서뿐 아니라 '지금, 여기'의 삶도 많은 이들의 도움 덕분에 굴러간다.
 낯선 곳에 도착한 이들을 반기고, 그들이 와 있는 동안
 편안하고 즐겁게 지내다 가도록 안내하는 것.
 그것이 이 지구에 잠깐 머물다 떠나는 여행자들이 서로에게 해왔으며
 앞으로도 계속될 일이다.
 - 김명하 <여행의 이유>

WISE SAYING 08

혼자 꾸는 꿈은
 그저 꿈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다.
 - 존 레논, 요코 요코

챗지피티 시대, 사람만의 일은 무엇일까

구본권 사람과디지털연구소 소장

2022년 11월 30일 거대언어모델 기반의 대화형 인공지능 챗지피티ChatGPT가 공개된 이후, 전 세계는 인공지능의 놀라운 능력에 충격을 받았다. 프로그램 코드 작성, 대입 수능시험 통과, 소설 쓰기, 변호사 자격시험 통과 등에서 챗지피티 활용 사례가 알려지면서 2016년 알파고 때와는 달리 경탄과 탄식이 교차하는 모양새다.

마이크로소프트MS 공동 창업자 빌 게이츠Bill Gates는 “인공지능 시대가 열렸다”는 글을 올려 챗지피티가 자신이 1980년대 접한 그래픽사용자환경Graphical User Interface 만큼 혁명적인 기술이라고 말했다. 오늘날 정보화 혁명은 소수 전문가들의 도구였던 컴퓨터를 만인의 도구로 만든 GUI 덕분이다. GUI는 프로그램 명령어를 몰라도 아이콘을 눌러 누구나 컴퓨터를 이용하게 했고, 스마트폰 혁명을 가져온 기술적 배경이 됐다. 이번엔 챗지피티가 거대한 인공지능 혁명을 가져올 것이라는 예고다.

챗지피티 충격은 인간 고유의 지적 도구인 언어를 기술 조작법으로 삼은 데 기인한다.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Yuval Harari는 “태초에 말씀이 있었듯, 언어는 인간 문화의 운영체제”라며 언어에서 신화와 법, 국가, 예술과 과학, 돈, 컴퓨터 코드가 나온다고 말했다. 인공지능이 거대언어모델 학습을 통해 언어의 달인이 됐다는 것은 기기 조작 수단의 차원을 뛰어넘는다. “인공지능의 새로운 언어 숙달은 이제 문명의 운영체제를 해킹하고 조작할 수 있음을 뜻한다”는 게 하라리의 경고다.

기술 발전에 따라 일자리는 변화가 불가피하다. 국제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미국과 유럽에서 일자리 3억개를 대체할 것이며, 미국 노동자들의 직무 약 70%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프로그램 명령어를 몰라도 일상 언어로 강력한 인공지능을 조수처럼 부릴 수 있는 상황은 동화 속 세상을 떠올리게 한다. 프롬프트에 질문을 던지거나 요청을 하는 것은 마법의 주문을 외우는 것과 비슷하다. 알라딘의 마술 램프, 해리 포터의 마법 주문처럼 희한한 요청을 하더라도 인공지능은 눈 깜짝할 새 답변을 내놓는다. 챗지피티가 ‘환각 현상’ 없이 유용한 결과를 내놓도록 질문하는 기술을 다루는 신종 직업 ‘프롬프트 엔지니어’는 마법학교에서 실수 없이 주문 외우는 법을 배우는 학생처럼 여겨진다.

챗지피티 시대에 마법 주문 외우는 법을 익히는 것은 얼마나 유용할까? 프롬프트 엔지니어는 인터넷 초기의 정보검색사 운명이 될 거라는 전망이 많다. 자연어 검색 기술이 발달하면서 정보검색사는 금세 사라졌다. 기술 장벽은 점점 낮아져 평평해질 텐데, 그 시점에서 중요한 능력은 무엇이 될지가 인공지능 시대의 교육과 직업 탐색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질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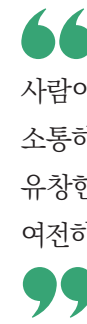
챗지피티와 동화 속 마법을 비교할 때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다. 소중한 마지막 소원을 몸에서 소시지를 떼어내는 데 쓸 수밖에 없었다는 <세 가지 소원> 동화다. 마법처럼 강력한 기술을 누구나 자유로이 쓸 수 있는 환경에서 중요한 것은 그 힘을 어디에, 무엇을 위해 사용하느냐의 문제다. 누구나 욕망한 대로 도구를 쓸 수 있는 환경에서 어떠한 개인적·사회적 통제체계를 마련해야 하는지도 과제다.

챗지피티, 미드저니,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 도구가 우리 손에 쥐어진 환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 과제를 던진다. 하나는 로봇과 인공지능이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그러한 인공지능 환경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다. 똑똑한 기계나 다른 사람이 대신 해결해줄 수 없는 문제다. 결국 길을 선택하는 자신에게 모든 것이 위임된 세상이다.

인공지능 시대는 필연적으로 인간의 본질, 삶의 의미에 대해서 더욱 깊은 질문을 던진다. 인공지능과 자동화는 우리에게 기계가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없는 모방 불가능한 인간의 능력이 무엇인지 묻는다. 기계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경쟁력 있는 직업을 유지하기 위해 인간의 고유한 기능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을 넘어서는 질문이다. 인공지능이 점점 더 똑똑해지면서 사람이 해오던 많은 일을 기계가 대신하는 상황에서 ‘인간이 인간다워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물음이다.

인공지능 시대에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은 결핍과 그로 인한 고통이다. 인류의 역사와 문명은 이러한 결핍과 고통에서 느낀 감정을 동력 삼아 발달시켜온 고유의 생존 시스템이다. 위험과 결핍은 두렵고 고통스러웠지만 인류는 놀라운 유연성과 창의적 능력으로 대응 체계를 만들어냈다. 결핍과 고통을 벗어나는 과정에서 인류가 경험을 통해 체득한 생존 노하우가 유연성과 창의성이다. 결핍에서 오는 절박함이 만들어낸 인간의 유연성과 창의성은 기계에게 가르치기 불가능한 속성이다.

그래서 인간의 약점은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기계와 구별되는 최후의 요소다. 기계는 설계하는 대로 작동하고



사람이 모인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은 챗지피티가 아무리 유창한 언어능력을 지니더라도 여전히 대체될 수 없는 사람만의 일이다.

우리는 사람의 결점과 단점을 벗어나기 위한 의도로 기계를 설계한다. 부정확한 인식과 판단, 감정에 의한 번덕스럽고 비합리적인 행동, 망각과 고통 같은 사람의 속성을 기계에 부여하지 않는다.

인간은 우리가 기계에 부여하지 않을, 이러한 부족함과 결핍의 존재다. 하지만 거기에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가 가야 할 사람의 길이 있다. 똑똑한 기계가 사람의 지능을 넘어서고 많은 직무를 대체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사람만이 해야 하는 영역은 여전히 것이다. 인공지능 시대에 적응하는 방법은 경쟁이 아닌 공존과 공생이다. 똑똑한 기계와 경쟁하기보다 공존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알고리즘과 인공지능의 속성 그리고 그로 인한 세상의 변화를 아는 것이 먼저다. 우리는 앞으로도 다른 사람들과 공존하는 미래를 살아간다. 사람이 모인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소통과 공감의 능력은 챗지피티가 아무리 유창한 언어능력을 지니더라도 여전히 대체될 수 없는 사람만의 일이다.

풀리처상을 받은 미국의 시인 메리 올리버Mary Oliver는 이렇게 말한다. “이 우주에서 우리에게 두 가지 선물이 주어진다. 사랑하는 능력과 질문하는 능력. 그 두 가지 선물은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는 불인 동시에 우리를 태우는 불이기도 하다.” 시인이 말하는 사랑하는 힘과 질문하는 힘은 감정과 호기심을 말한다. 기계가 따라 할 수 없는 사람만의 특성인 사랑과 호기심은 감정적 결핍과 지적 결핍에서 나온다. 감정과 호기심은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는 마법의 불인 동시에 우리 자신을 불쏘시개와 연료로 만들어버리는 치명적인 에너지라는 시인의 통찰은 인공지능 시대에 사람은 어떻게 사람다울 수 있는지를 알려준다.



구본권

우리 시대의 대표적인 디지털 인문학자. 한겨레 기자로 일하며 사람과디지털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디지털 기술의 빛과 그늘을 함께 보도해온 IT 전문 저널리스트로 기술과 사람이 건강한 관계를 갖기를 바라며 글을 쓰고 강의를 한다. 저서로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야 할 이들을 위한 안내서 <로봇시대, 인간과 일>, <유튜브에 빠진 너에게>가 있다.

나를 존중하는 일이 곧 상생을 향한 첫걸음

‘인생 노잼’을 외치는 아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꿈을 찾게 만든
방승호 전^前 아현산업정보학교 교장.

인형 탈을 쓰고 학생들에게 명함을 돌리는가 하면

화장실 앞에서 버스킹을 한 그의 ‘괴짜’ 교장 생활은 다큐 무비 <스쿨 오브 락>에 소개된 바 있다.

지난 2월 말 퇴직해 학교를 떠났지만 그는 여전히 기타를 메고 상담을 이어가고 있다.

음악은 그가 세상과 소통하는 방식이자 상생하는 만능열쇠이기 때문이다.



어느덧 9집 앨범을 발표한 어엿한 가수입니다. 최근 앨범 <콜드블루-둘레길>은 래퍼 아웃사이더와 함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만들어 호응이 뜨겁다 고 들었어요.

콘서트를 앞둔 조용필 님보다 이번 앨범에 관한 기사가 더 많은 듯합니다.(웃음) 무척 감사한 일이지요. 학교에서 상담을 해보면 학교생활을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대체로 폭력 문제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돌림을 당한 한 학생이 '구겨진 상자 안에서 사는 기분'이라고 말한 게 가슴에 와닿았고, 학폭 문제를 노래로 이야기해보고 싶었어요. 상담했던 학생에게 같이 노래를 만들어보자고 제안한 것이 이번 앨범의 시작이었지만, 운이 좋게 래퍼 아웃사이더 님과 인연이 닿아 합창 장르에 도전해보게 되었네요. 학생과도 꾸준히 인연을 이어간 끝에 최근 또 다른 음악 작업을 마쳤습니다. 그 노래도 곧 세상에 선보일 예정이에요.

학교에서 노래하는 교장 선생님이로 유명하셨어요. 금연을 응원하는 '노타바코송'을 비롯해 직접 작사·작곡한 노래를 부르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아이들을 상담할 때 꿈이 무엇이나는 질문을 많이 던졌습니다. 그러다 문득 '내 꿈은 무엇이지?'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꿈을 실현한 사람이 그런 질문을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하는 말은 무게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노래를 좋아했고, 음반을 내는 게 제 꿈이었던 걸 깨닫고 바로 행동으로 옮겼어요. 노래를 하면서 느낀 점은 문화의 힘이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학교에서 버스킹 한 번 했을 뿐인데 교내 분위기가 확 달라졌거든요. 학교가 재미있는 곳으로 변하니 지각생과 결석생이 사라지고, 담배 피우는 학생이 되레 이상해지는 문화가 형성되면서 흡연율이 '0'이 되었어요. 아이들이 학교 가는 걸 즐기게 되자 학교에서 꿈을 찾기 시작했구요. 학교폭력 문제도 자연스럽게 사라졌습니다. 대부분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 그 문제를 없애는 데 집중하지만, 세상은 모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만으로는 전체를 바꿀 수 없습니다.

상담 전문 교사도 아닌데 재직 당시 매일 상담을 하셨다고요.

교사로 처음 부임했을 때는 어떤 선생이 되겠다는 목표가 없었습니다. 나 스스로 늘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인지, 유독 학교를 어려워하고 공부 못하는 학생들에게 마음이 쓰이긴 했지만요. 평소 시답지 않은 농담을 즐기고 너스레를 잘 떠는 편인데요. 사람들을 웃기는 게 제가 가진 유일한 재능입니다. 그래서 수업도 늘 재밌게 하는데 초점을 맞췄어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더 재밌게 해줄지 고민한 끝에 레크리에이션 자격증을 취득했고 그게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자격증 덕분에 미국으로 모험놀이 상담 연수를 가게 되었거든요. 당시 우리나라는 한 사람만 잘못해도 단체기합을 받는 분위기였는데 미국에서는 손잡고 노는 게 상담이라고 하더군요. 머리가 확 트이는 느낌이었습니다. 학교로 돌아와 곧장 상담을 자처했어요. 배운 내용을 토대로 저만의 상담 방식을 찾으려고 부단히 노력도 했구요. 그때 시작한 상담이 교장이 되어서까지 쭉 이어진 겁니다.



아이들을 상담하면서 인생이 바뀌고, 가장 많이 변화하고 성장한 사람이 선생님 본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괴로워하는 이유는 대체로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갇혀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상담을 통해 아이들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서 벗어나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어렵지 않아요. 간단한 놀이로 마음의 문을 열고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지요. 이때 아이 스스로 자각하고 성찰하게 만드는 게 포인트예요. 그런데 제가 그런 경험이 없다면 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러니 저 역시 자각하고 성찰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아침마다 명상과 운동, 글 쓰는 일과를 빼놓지 않아요. 처음부터 상담이 천직이었다기보다 상담을 하면서 아이들과 제가 서로의 삶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게 된 셈입니다.

소위 문제아로 불리는 아이들도 선생님 눈에는 천사로 비쳤다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문제아'라는 건 고정관념입니다. 문제아라는 단어에 사로잡혀 있으면 아이를 제대로 볼 수 없어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아는 대로 보게 마련입니다. 있는 그대로 본다는 건 고정관념이 없고 사회적으로 학습된 언어에서 분리되는 일이지요. 제가 학교에 PC방을 만들었는데요. 아마 세계 최초였을 거예요. 아이들이 게임 때문에 공부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가정 사정, 친구 문제로 공부를 포기하고 오히려 게임으로 위로받게 된다는 걸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학교에 e-스포츠학과를 신설할 때 처음에는 반대가 거셌지만 결국 그 아이들이 세계 대회에서 당당하게 1등을 거머쥐었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10시간씩 한다고 중독이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왜 게임만 중독이라고 표현하는 걸까요. 이런 게 고정관념이죠.

아이들의 마음을 헤아려준 선생님의 노력이 아이들의 태도를 바꾸고 그 결과 흡연 근절, 학교폭력 제로라는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상생하는 여건을 만들려면 우선 나 한 사람의 행동이 중요한 것 같은데요.

제 인생의 모토가 '나눔'입니다. 교직에 몸담은 35년 동안 평일에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상담했고, 주말이면 도움이 필요한 곳에서 상담과 강의를 나눴습니다. 처음부터 봉사를 할 생각은 없었어요. 일개 교사가 상담으로 아이들을 변화시키고 강의까지 하게 되자 시기하는 시선이 생겼고 그게 불편해서 무상으로 시작했습니다.

꾸준히 지속하다 보니 재능기부로 대통령상까지 받게 되었고요. 어떤 종교든 '자기를 사랑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있는 그대로 보란 말이기도 하지만, 나 좋으라고 하는 일이 아니면 오래가지 못한다는 뜻이기도 해요. 상담과 강연 봉사가 제 마음 편하자고 시작한 일이었듯이 말입니다. 대가가 없다는 점에서 나눔과 희생은 얼핏 비슷해 보이지만, 희생은 피곤하고 힘들어서 오래가지 못합니다. 저는 아이들을 만나는 일이 피곤하기는커녕 정말 즐거웠어요. 아이들 스스로 성찰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게 가장 큰 기쁨이자 보람이었죠.

나눔이 선생님의 에너지 원천이었네요. 나눔으로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서로 상생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함께 잘 살려면 결국 '나눔'이 해법일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나눔을 실천해볼 수 있을까요?

우선 내가 잘 살아야 합니다. 가진 게 없으면 나눌 것 역시 없으니까요. 나눔과 희생의 차이는 자기 성장에 있습니다. 상담을 받은 아이들 중에 인연이 계속 이어지는 경우는 성장을 이룬 부류입니다.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관계일 때 만남이 지속된다는 점에서 상생을 위해서도 성장은 빼놓을 수 없는 요소이죠. 개인이 성장하려면 성찰이 빠질 수 없는데요. 우리가 나를 잘 알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우선 내가 나를 보물처럼 여겨야 합니다.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면 남을 대하는 방식도 저절로 바뀝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자신을 보물처럼 여긴다면 함께 잘사는 사회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테고요. 나를 아는 일이 어려운 분들에게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첫걸음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찾는 겁니다. 추구하는 목표가 생기면 성장은 뒤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눈떴을 때 내가 좋아하는 일 10가지를 써보세요. 그중에서 가장 해보고 싶은 일 한두 가지를 주말에 시도해보세요. 어릴 때 잘했던 일과 연관이 있으면 더 재밌겠죠. 재미를 추구하다 노래를 부르게 되고, 노래가 상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제 삶이 완전히 달라진 것처럼 말입니다. 결국 개인이 행복해져야 이타적인 삶도 가능합니다.



방송호
가수, 작가, 강연자 등 다양한 '부캐'를 보유한 국내 최초 모험놀이 상담가. 교장 퇴임 후 자체 설립한 모험상담연구소 소장으로 활동하며 상담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대표 저서로 <노래하는 교장 방송호의 마음의 반창고>가 있다.

WALK in INCHEON

상생의 도시 인천을 걷다

오래된 역사와 근현대사의 흔적이 함께 어우러져 남아 있는 곳. 무작정 낡은 것을 없애는 대신, 그 안에 새롭고 현대적인 모습을 만들어 나아가는 곳. 인천은 다양한 삶의 풍경을 한자리에서 마주할 수 있는 곳이다. 보면 볼수록 다니면 다닐수록 더 궁금해지는 이유다. 그리고 인천에는 수도권 전력공급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 청정발전단지 서인천발전본부가 있다. 이곳은 천연가스LNG를 주 연료로 사용하는 '녹색기업' 인증 친환경발전소로서 전력 수급 요청에 유동적으로 대응 가능해 안정적인 전력 운영에 기여하고 있다. 현재와 과거가 공존하는 인천에 상생의 에너지를 불어넣고 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싱그러움이 더해가는 5월, 인천을 찾았다.



- 1 도시재생사업으로 재탄생한 인천아트플랫폼의 외관
- 2 곳곳에 즐비한 뉴트로 감성의 맛집들
- 3 인천거리 곳곳을 장식한 아름다운 벽화
- 4 공공미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조성한 인천문화양조장

SPOT 1

배다리 헌책방거리

많은 배를 대던 곳, 배를 이어 붙여 다리를 놓았다는 데서 유래한 '배다리'는 헌책방거리로 유명한 곳이다. 20여 개 헌책방이 즐비하던 과거의 전성기는 지났지만 드라마 <도깨비>의 촬영지 '한미서점', 인천에서 가장 오래된 헌책방 '집현전', '아벨서점', '삼성서림' 등이 굳건히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 한옥책방 '마쉬', 무인서점 '나비날다', 시집과 예술서를 전문으로 다루는 '시와 예술' 같은 독립서점들이 거리에 개성을 더하며 오래된 헌책방거리에 뉴트로 문화가 더해져 MZ세대가 사랑하는 거리로 거듭나고 있다. 이 밖에도 북카페, 공방 등 다양한 문화예술공간이 자연스레 어우러진 이곳은 앞으로도 자신만의 이야기를 켜켜이 쌓아나갈 것이다.

SPOT 2

차이나타운

중국을 상징하는 붉은색과 황금색으로 무장한 차이나타운. 용 장식 이 눈길을 끄는 입구 대문부터 이국적인 분위기를 풍긴다. 소박하면서도 다정한 한국 문화 속에서 강렬한 느낌을 주는 이곳은 한국 속의 작은 중국 같다. 한국인의 대표 외식 메뉴 짜장면이 탄생한 곳이 바로 여기이기도 하다. 국수에 춘장과 고명을 얹어 먹는 중국 전통 요리를 한국인의 입맛에 맞춘 일종의 퓨전 음식이 지금의 짜장면이고 이것을 중국에서 인천으로 건너온 화교들이 팔면서 널리 퍼져나갔다고 한다. 차이나타운에는 1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식당 공화춘부터 시작해 짜장면 맛집이 즐비하니 작은 중국 안에서 중식을 즐길 만하다. 식사 후에는 탕후루, 공갈빵 등 중국 전통 길거리 간식을 맛보는 재미도 빠트리지 말자.

SPOT 3

개항로와 인천아트플랫폼

차이나타운과 자연스레 이어진 개항로는 동인천 나들이 코스 of 목음 세트로 꼽힌다. 개항박물관, 한국 최초의 서구식 호텔인 대불호텔 전시관, 대한통운의 어쿠스틱한 변신을 자랑하는 인천아트플랫폼 등 볼거리가 다양하다. 특히 인천아트플랫폼은 인천광역시 원도심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조성한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옛 대한통운 물류창고, 인쇄소 등 근대 건축물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어 멋스러움이 가득하다. 공모로 선정된 국내외 입주 예술가의 스튜디오와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수준 높은 문화예술 행사를 개최하니 눈여겨보자.



- 1 배다리 헌책방거리로 들어가는 길목
- 2 무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나비날다' 책방
- 3 드라마 <도깨비> 촬영지로 유명한 한미서점
- 4 강렬한 벽화가 인상적인 인천아트플랫폼 거리
- 5 한국 속의 작은 중국 차이나타운 입구
- 6 역사적 의미를 지닌 답동성당
- 7 답동성당을 통해 엿볼 수 있는 20세기 초 교회건축 양식
- 8 인천의 관문에 해당하는 연안부두



SPOT 4

인천의 부두와 포구

인천은 엄연히 바다를 낀 항구도시다. 도심 변화가, 주택가, 산업지구가 두루 어우러져 있다 보니 정작 인천 시민들은 인천이 항구도시라는 사실조차 잊기 일쑤라 한다. 하지만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일찍이 바다에서 생업을 이룬 인천 시민들이 있었다. 바다에서 구한 먹거리로 업을 삼은 어부가 있었고, 인천 항구를 통해 들어오는 물품들은 인천 산업의 근간이 되기도 했다. 그래서 부두와 포구를 빼고는 인천을 설명할 수 없다. 과거 수도 한성의 입구에 해당하는 인천 제물포항이 열리면서 일본을 비롯해 청나라 상인과 서양의 선교사, 외교인들이 잇따라 첫발을 내디딘 곳이 인천이다. 폐쇄적이던 조선의 실질적인 개국이 인천항 개항을 통해 시작된 셈이다. 바다와 함께하는 인천, 과거와 현재가 어우러진 인천은 다양성과 개성을 지닌 아름다운 모습으로 상생을 이어가고 있다.

SPOT 5

답동성당

배다리 헌책방거리의 다채로운 문화공간에 흠뻑 취해 개항로 웨딩거리 방향으로 10여 분 걷다 보면 붉은 벽돌로 지어진 답동성당이 멋스러운 모습을 드러낸다. 답동성당은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성당 건축물로,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종교적 위엄은 물론 건축물 자체의 아름다움을 고스란히 지니고 있다. 1897년 건립 이후 두 차례의 내부공사는 있었지만 옛 모습이 비교적 잘 보존되어 20세기 초에 지어진 우리나라 교회 건물의 보편적 아름다움을 마주할 수 있다. 답동성당은 단순히 성당이라는 종교적 의미만을 지닌 곳은 아니다. 엄혹했던 군사독재 시절 민주화의 성지였고 핍박받는 노동자를 기꺼이 품어 안아주는 곳이었으며, 간절했던 대 순간 사회정의를 위해 목소리를 내고 민주화의 횃불을 밝히며 굼직한 근현대사를 함께해왔다. 인천 개항기 거리 도보 관광 코스에서 빠지지 않는 이곳은 이렇게 역사적 의미와 아름다움을 함께 지니고 있다.



상생相生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선택

혼자 꾸는 꿈은 그저 꿈에 지나지 않지만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고 했습니다.

사람들과의 번잡스러운 관계와 갈등을
회피하려는 사회적 풍토가
‘나 홀로 문화’를 트렌드로 만들고 있습니다.
현실을 바꾸는 게 어렵기에 그저 순응하며 그 틀 안에서 살아가지요.
그러나 돌이켜보면 인류의 역사는
‘꿈꾸는 것’을 넘어 ‘행동으로 옮겼을 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더 나은 세상, 더 나은 삶을 바란다면
상생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한국서부발전 역시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상생을 도모하며 다각도로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협력하고 제휴하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는
서부발전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왼쪽부터 사업금융부 권기선 차장, 해외사업실 유명한 차장, 문학성 차장, 고윤호 실장, 연제홍 주임, 소동욱 차장

오만 태양광 사업 수주 성공 ——— 10년의 노력이 결실을 맺다

한국서부발전 해외신사업처 해외사업실

빛나는 성공 뒤에는 언제나 숨은 영웅들이 있다.
오만 태양광 사업 수주를 위해
지치지 않고 성공의 트로피를 손에 쥐기까지,
해외사업실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어봤다.

지난 3월 21일, 한국서부발전은 축제의 현장이었다. 서부발전이 국내 최초로 오만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수주한 것. 이번 사업은 오만의 수도 무스카트에서 남서쪽으로 170km 떨어진 다킬리아주 마나시에 1,000MW 용량의 태양광발전소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완공 시 오만의 최대 규모 태양광발전소가 된다. 서부발전이 진행하는 '마나1 태양광발전 사업'은 여의도 면적의 2.6배 부지에 약 6,000억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건설 사업이다. 오만수전력조달공사가 발주한 '오만 마나 500MW 태양광발전' 사업 최종 낙찰은 대내외적으로 큰 의미를 지닌다. 서부발전에서 첫 도전으로 성공한 입찰 사업이자, 굴지의 글로벌 에너지 기업이 속한 컨소시엄들을 물리치고 입찰을 따낸 뜻깊은 사례다.

첫 도전에 이루어낸 큰 성과

오만이 속한 중동은 사업을 따내기 위해 세계적인 기업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곳이다. 그곳에서 한국 기업의 입찰 성공은 국내 에너지 시장에 한 획을 그었다고 표현할 수 있다. 가장 어려운 중동 시장에서 성공 사례를 만들었기에 앞으로 다른 어떤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춘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사업은 10개 가운데 1개도 성공하기 어렵지만, 반면에 하나만 성공해도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해외신사업처는 누구도 해보지 않은 어려운 길을 가는 팀입니다. 끝없이 새로운 도전을 하고 노력한 끝에 사업을 탄생시키는 곳이지요. 그래서 이번 성과가 더 뜻깊습니다.”

쉽지 않았던 그간의 과정을 떠올리며 해외신사업처 소동욱 차장이 담담히 소회를 밝혔다. 특히 첫 도전에 입찰 성공을 한 데에는 그간 차근차근 쌓아온 노력이 비로소 결실을 맺은 쾌거였기에 더 큰 의미를 지녔다 할 수 있다.

파트너십을 넘어선 상생의 가치

이번 사업은 서부발전이 홀로가 아닌, 좋은 파트너사와 상생한 것이 성공의 열쇠였다. 입찰을 준비하기 전, 중동 사업에 노하우가 있는 프랑스국영전력회사의 신재생발전 자회사인 EDF-REDF-

Renewables과 파트너십을 맺었다. 서부발전은 금융 조달을 책임지고 은행과 선제적인 협상에 나섰다.

“저희와 파트너사는 각자의 장점이 분명했습니다. EDF-R은 중동 사업에 대한 탄탄한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 쪽을 준비했고, 저희는 금융 쪽을 맡기로 했죠.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에 집중하면서 시너지 효과가 난 것 같습니다.”

하지만 EDF-R과 협업이 처음부터 쉬웠던 건 아니었다. 앞친 데 뒤편 격으로 팬데믹까지 시작되면서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수시로 생겼다. 힘들고 지치는 시기였지만 돌아켜보니 그 시간 동안 서부발전과 파트너사는 오히려 서로를 깊이 이해하며 끈끈한 관계로 발전했다.

“저희 파트너사는 프랑스 국영 공사의 자회사예요. 그래서 일단 모든 회의를 영어로 해야 하는 게 힘들었고요.(웃음) 두 회사가 처음 만나다 보니 기업문화도 다르고, 장단점도 파악이 안 돼서 손발을 맞추는 게 힘들었어요. 거기에 팬데믹까지 겹쳐 1년 넘게 매주 화상 회의로만 만났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상황이 힘들다 보니 서로 의지하고 속내를 털어놓는 사이가 될 수 있었어요. 끈끈한 파트너십 덕분에 마지막까지 지치지 않고 달릴 수 있었습니다. 오만 사업 낙찰 후에도 계속 관계를 이어가며 새로운 사업을 논의하는 중입니다.”



4



1



3

- 1 2주 동안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졌던 오만 합동사무소 현장
- 2 MOU 서명 후 기념촬영 중인 박형덕 서부발전 사장
- 3 최종 회의 후 기념촬영 중인 서부발전, EDF-R, 오만수전력조달공사(OPWP) 관계자들
- 4 회의 중인 서부발전, EDF-R 실무자들
- 5 오만 마나 태양광발전 사업을 설명 중인 소동욱 해외사업실 차장



5



- 1 오만 마나 태양광발전 사업 예정 부지
- 2 사창립 행사에서 공로상을 받은 소동욱 차장(왼쪽 세 번째)
- 3 OPWP에서 3사 관계자들이 회의 중인 모습
- 4 김성균 서부발전 부사장(왼쪽 세 번째) 등 3사 관계자들이 한국무역보험공사를 찾아 회의 중인 모습

“

저희와 파트너사는 각자의 장점이 분명했습니다. 저희는 금융 쪽을 맡기로 했죠.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에 집중하면서 시너지 효과가 난 것 같습니다.

”

신뢰를 바탕으로 한 파트너사와의 특별한 우정

입찰 전 서부발전의 현장 직원이 모두 오만에 파견되어 막판까지 협상에 힘썼다. 서로 지분이 동일한 컨소시엄에서는 둘 중에 한 기업이라도 녹장을 부리면 앞으로 전진할 수 없다. 입찰 전날까지 매일 릴레이 회의가 이어졌는데, 서로 힘을 북돋워주며 빠르게 의사결정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파트너사인 EDF-R은 신속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서부발전에 깊은 신뢰를 쌓게 됐다.

“입찰을 앞두고 저희 사무실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전 직원이 24시간 격리하고 자가검사 키트로 다 검사는 했지만, 대면 미팅이 어려워지면서 EDF-R에 미안하다고 연락을 했죠. 그런데 그쪽에서 ‘우리는 괜찮다’며, ‘대면 미팅이 필요하면 얼마든지 협조하겠다’고 이야기하더군요. 힘을 합쳐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싶다고 응원을 해주면서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관계가 아닌 1~2년 동안 쌓인 신뢰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 편의 영화 같은 협상 스토리

오만 사업 수주를 위한 협상 테이블은 마지막까지 손에 땀을 쥐게 만들었다. 이번 같은 큰 프로젝트는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조건이 무척 중요하다. 서부발전은 오랜 시간 금융기관과 관계를 유지하며 좋은 금리 조건을 받았다. 그런데 갑자기 입찰 5일을 남겨두고 금리가 올라갔다. 현지 은행에서 제시하는 조건에 비해 무척 불리해진 것이다.

“보통 현지 은행을 찾아 계약하는 데 3개월 이상 걸립니다. 근데 저희에게 남은 시간은 5일뿐이었어요. 모든 인력을 동원해서 바로 현지 은행장을 만나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입찰 전날, 기적같이 좋은 조건으로 서명을 제출한 순간이 참 기억에 남는군요.”

공사 금액 협상에서도 해외신사업처의 기지가 빛을 발했다. 입찰 사업은 모든 곳에서 금액을 최대한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중에서도 공사 금액이 핵심이다. 공사 업체는 최대한 받아내려 하고, 서부발전은 최대한 줄이기 위해 마지막까지 밀고 당기는 치열한 협상이 이어졌다.

“공사 업체와는 체결과 번복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입찰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밤 10시에 협상이 결렬됐어요. 새벽 1시에 호텔을 찾아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았고 당일 새벽에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저희가 원하는 금액으로 협상이 실패했다면, 아마 수주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때 생각만 하면 지금도 식은땀이 흐르면서도, 성취의 기쁨이 두 배로 느껴집니다.”

입찰 후에는 조금 여유가 생길까 생각했던 해외사업실은 여전히 바쁘다. 국내외 기업들의 뜨거운 관심과 협업 제안을 받고 있다고.

오만 태양광 사업 수주 이후에도 그들의 새로운 도전은 계속될 예정이다.

Talk! Talk!

함께 만들어요, 상생 파트너

이번 호 <서부공감>의 테마인 ‘상생’을 주제로 4인 4색 익명 오픈 채팅방을 열었다.
상생하는 조직, 대내외 협력관계를 위한 한국서부발전의 발전 방안을 모색해봤다.

참여자 닉네임

튜브깬튜브브님, 줄린무지님, 팩트폭격기님, 줄린라이언님



< SITUATION 1

우리 회사는 상생하는 회사인가? 상생 정신 점수는 몇 점?

기업에서 ‘상생’이 중요한 이유는 다른 기업, 지역사회 등과 협력을 통해 생산성과 혁신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서부발전은 얼마나 상생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을까?

튜브깬튜브브님, 줄린무지님, 팩트폭격기님, 줄린라이언님이 들어왔습니다.



진행자

반갑습니다. 각자도생의 시대에 역설적으로 ‘상생’은 더욱 귀한 가치인 것 같습니다. 서부발전은 상생하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회사의 상생 정신에 솔직한 점수를 매긴다면?



팩트폭격기

상생이 조직 외부와의 상생을 의미한다면 100점, 조직 내부와의 상생이라면 10점.



진행자

와우, 둘 사이의 온도 차가 크네요. 점수 차이가 큰 이유가 궁금한데요.

팩트폭격기

내부적으로의 상생이라면 직급 간의 소통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데,
서부발전은 수직적 의사 결정 체계이고, 위를 향해 제안을 할 공식적인 창구가 없어
자유로운 소통이 어려워요.



튜브깬튜브브

공감해요. 저도 사외 점수 100점, 사내 점수 60점 정도로 매겨보고 싶은데요.
외부 협력관계에는 부단히 노력을 하지만 내부에서는 그러한 노력이 크게 와닿지 않아요.



진행자

서부발전 직원이 아닌 외부인 입장에서 봤을 때, 대외적인 이미지도 좋고
자회사나 협력 파트너들과의 관계가 정말 나이스하다고 평소 느껴졌어요.
내부적으로는 엄격하다는 뜻일까요?



줄린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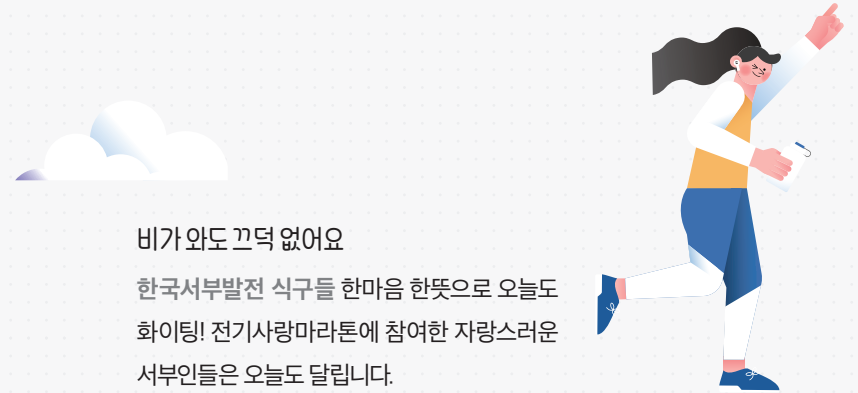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70점이라고 생각하는데, 블라인드를 보면
회사에 불만도 많아 보이고, 특히 이번 청렴도 발표에 많은 분들이
응어리를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20회 전기사랑 마라톤대회

전기인들, 달린다!

촉촉한 봄비가 내리던 지난 4월 29일 하남 미사경정공원에서 '제20회 전기사랑 마라톤대회'가 열렸다. 뜨거운 열기와 함성 속에서 개최된 전기인들의 축제, 마라톤 현장 속으로!

체육 문화행사를 통해 전기의 소중함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자 지난 2004년부터 개최돼 올해 20회를 맞이한 전기사랑 마라톤대회. 코로나19로 지난 3년간 비대면으로 이루어졌던 행사가 올해 하남 미사경정공원에서 대면으로 개최됐다. 오랜만의 대면 행사이다 보니 봄비를 맞으면서도 전기인들의 얼굴에선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비가 와도 끔덕 없어요

한국서부발전 식구들 한마음 한뜻으로 오늘도 화이팅! 전기사랑마라톤에 참여한 자랑스러운 서부인들은 오늘도 달립니다.



봄비 맞으며 힘차게 출발!

비가 내려도 전기인들의 열정은 막을 수 없습니다.

우비까지 단단히 챙겨 입고 가족과 동료, 친구들과 함께 끝까지 달려봅시다.



딸 뒤통까지 열심히 달릴게요~

조달협력처 계약자재부 김보미 차장 가족 김중섭(70세), 박연진(68세) 딸과 함께 신청했는데 딸이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서 저희만 참여했어요. 전기인의 가족으로서 전기인들의 축제에 참여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 딸 뒤통까지 열심히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의 오프라인 행사라 더욱 즐거워요!

조달협력처 연료조달부 김주희 사원, 김성기(61세) 지난 2년 연속 비대면 마라톤 대회에 참가했는데, 간만에 대면으로 진행되어 더욱 신이 납니다. 오늘을 위해 두 달 동안 열심히 연습했어요. 목표는 '10km 55분 내 완주'이고 아빠의 목표는 딸을 이기는 거라고 합니다. 비가 오지만 열심히 달려서 목표 달성 해보겠습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시선을 사로잡다

대국민 탄소중립 아이디어 공모전 최우수상 수상자 3인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24일까지 ‘한국서부발전 대국민 탄소중립 아이디어 공모전’이 개최됐다. 자신만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시선을 사로잡은 3인의 수상자를 만났다.



박선영 실천수기 부문

세 살부터 들인 탄소중립 실천 습관,
100살까지 간다

“저희가 어릴 때는 미세먼지라는 개념이 없었잖아요? 그만큼 환경이 깨끗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이들을 보면 더욱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고 쓰레기 더미가 쌓이는 세상에서 사는 건 불행한 일 아니까요.”

월봉초등학교 교사 박선영 씨는 작은 것이라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고 여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포인트가 쌓이는 ‘알뜰교통카드’를 접한 뒤로는 몇 년째 버스로 출퇴근하고 있고, 평소 교실에서도 분리배출을 철저히 지도한다. 아무도 없는 교실은 ‘전기 지킴이’를 배치해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있으며 학생들 급식 지도도 특히 신경 쓰고 있다.

“단체생활을 시작하는 학령기부터 ‘급식’을 경험합니다. 혹시 학교에서 잔반통을 본 적 있나요? 매일 적게는 2~3통가량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해요.”

박선영 씨는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급식 지도에 있어 3가지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첫째, 탄소중립 실천이 습관으로 굳어질 수 있도록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자”처럼 생활 속에서 캠페인을 실천할 것. 둘째, 골고루 먹어야 음식을 남기지 않게 되므로 정기적인 ‘요리 수업’으로 음식에 흥미를 심어줄 것. 셋째는 적절한 칭찬으로 실천 동기를 부여해 줄 것. 이렇게 쌓인 경험이 모여서 습관이 되면 아이들도 탄소중립에 앞장서는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오상우 홍보영상 부문

탄소중립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한국서부발전

“자신이 활동하는 영역에서 조금만 다르게 생각해보고, 더 적극적으로 행동할 때 가장 효율적인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어요. 한국서부발전이 탄소중립을 위해 도전하는 모습을 보며, 이를 영상으로 표현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공모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오상우 씨의 홍보영상은 한국서부발전의 탄소중립에 관한 노력을 간결하면서도 명확하게 다루고 있다. “다양한 활동 중 무탄소 에너지원인 수소와 혼소율을 높여가며 에너지를 생산하려는 노력부터 CCU 기술 및 연료전지 투자 확대 등 탄소중립을 위해 한국서부발전이 어떠한 시도를 하고 있는지 알리고자 했어요. 짧은 영상이지만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황주희 캘리그래피 부문

탄소중립,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수채화, 디지털드로잉, 캘리그래피 등 그림과 글씨로 이야기를 담아내는 작가 황주희 씨. 자신의 캘리그래피를 통해 다른 이들이 탄소중립을 실천하도록 유도하고 싶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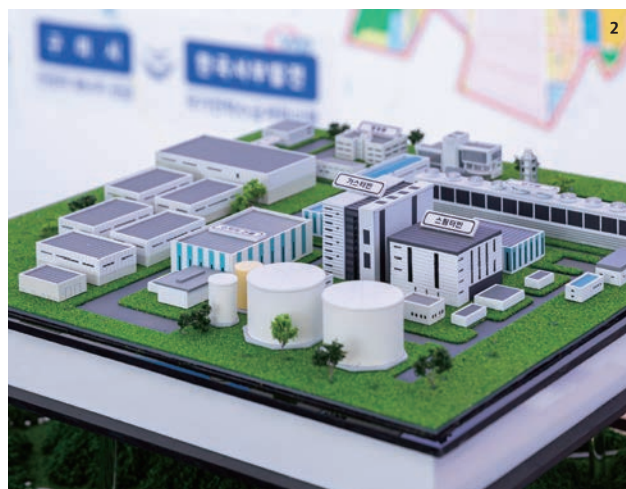
“탄소중립을 쉽게 풀어내고 싶었어요. 깨끗한 환경은 맑고 깨끗한 느낌의 파란색으로, 열심히 자리를 지키며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나무는 탄소중립의 ‘소’에 담아 표현했어요. 누구나 실천할 수 있으니 작은 것부터 해보기를 유도하는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서부발전, 구미 천연가스발전소 착공

탄소중립 시대를 향한 상생의 첫걸음

“ 지난 4월 25일, 한국서부발전은 구미 천연가스발전소 착공식을 개최했다.
구미 천연가스발전소는 구미 하이테크밸리 4만5,000여평 부지에
약 6,00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2017년 정부의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노후 석탄 에너지 전환을 위한 첫 번째 사업으로
202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한다. 설비 용량은 501.4MW다. ”



- 1 반가운 봄비 속 착공식을 알리는 비행선
- 2 구미 천연가스발전소 축소모형
- 3 착공을 축하하는 폭죽 세리머니



구미 천연가스발전소는 국가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른 탈석탄 제1호 발전소로서 큰 상징성을 지닌다. 2025년 폐지되는 태안 1호기를 대체할 예정이다. 석탄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천연가스를 사용하고 최신 환경설비를 적용한 친환경 발전소로 운영된다.

무엇보다 구미에서 만든 전력을 구미로 바로 공급하기 때문에 경제적 이다. 서부발전은 발전소 운영을 통해 구미시의 전력 자립률을 6%에서 30%까지 향상시킬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구미 하이테크밸리에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함으로써 반도체 등 첨단 산업 유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부발전은 2020년 9월 사업 허가를 취득하고 이듬해 10월 주민 설명회를 거쳐 2022년 10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원활한 협의를 이뤄냈다.

공사 기간 36개월, 건설비 6,932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된다. 건설 기간 중 일자리 15만 개를 창출하고, 지역

국가 에너지 전환 정책
탈석탄 제1호 발전소
구미 천연가스발전소.
변화의 에너지로 함께하는 내일로!
구미에서 시작합니다.

업체를 우선으로 선정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이날 착공식에서 “착공식 날 촉촉한 봄비가 내린다.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말이 있다. 천연가스발전소 출발부터 좋은 기운이 느껴진다. 이번에 짓는 천연가스발전소가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하면 반도체 특화단지를 더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모든 기업이 구미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구미시가 든든하게 지원하겠다”는 소감을 전했다.

박형덕 한국서부발전 사장은 “정부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내 첫 번째 사업으로 의미가 아주 크다.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과 품질의 친환경 발전소를 통해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서부발전은 안전과 환경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산업재해 근절과 환경친화적 설비 운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탄소중립과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 속에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친환경 에너지 글로벌 리더로 활약 중이다.

- 1 박형덕 서부발전 사장과 김장호 구미시장, 국민의힘 구자근·김영식 의원 등 200여명의 내외빈이 국민의례 중인 모습
- 2 감사패를 수여하고 있는 박형덕 서부발전 사장
- 3 박형덕 서부발전 사장이 기념사를 하는 모습
- 4 환담을 나누는 구자근 의원과 박형덕 서부발전 사장(오른쪽)

서부발전 NEWS



2023 한국서부발전 창립 22주년 기념행사
한국서부발전은 지난 4월 3일 본사 컨벤션홀에서 제22주년 사창립 기념식을 가졌다. 사창립 축하 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자랑스러운 서부인상 및 모범 직원상, 오만 공로상에 대한 시상식이 이어졌다. 2023년 서부인상 수상자로는 이인용(태안발전본부 제2발전처 발전부) 발전부장이 선정됐다. 박형덕 사장은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사창립 기념사를 발표하고 이어서 케이크 커팅식을 진행했다.

1 2023년 서부인상 및 모범직원, 오만 공로상 수상자들
2 창립 기념 영상을 시청하는 임직원들
3 2023년 서부인상을 수상한 이인용 태안발전본부 제2발전처 발전부장



협력사 현장 컨설팅으로 안전경영 정착
한국서부발전이 발전소 상주 협력사의 안전을 위한 현장 경영에 나섰다. 박형덕 사장과 경영진은 각각 평택발전본부와 태안발전본부, 서인천발전본부, 군산발전본부 등 네 곳을 차례로 찾아 21개 협력사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무재해 협력사를 포상했다. 찾아가는 CEO 안전컨설팅은 서부발전 경영진이 사업장에 상주하는 협력사를 방문해 안전관리 현황을 살피고 협력사의 실질적인 안전 확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차를 맞아 서부발전의 대표적인 협력사 소통 창구이자 안전점검 행사로 자리 잡았다. 행사는 무재해 협력사 포상, 2022년 협력사 현안 사항 조치 결과 공유, 2023년 안전관리 방향 토론, 현장 안전점검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지난해 무재해를 달성한 협력사에게는 2억8,000만원(총액 기준)의 포상금이 전달됐다. 협력사 관계자는 “서부발전의 적극적인 노력 덕분에 현장 환경이 많이 개선됐고 안전 문화가 정착되는 느낌이 든다”며 “안전에 관한 소통을 지속하는 서부발전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라고 말했다.



발전데이터 비즈니스 플랫폼 개발 사업 착수
한국서부발전이 발전소의 전력 생산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산업 데이터를 활용한 비즈니스 플랫폼 개발에 나섰다. 서부발전은 3월 29일 경기 성남 판교에 있는 디지털 기술공유센터에서 '발전데이터 비즈니스 플랫폼 개발 사업 착수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에는 서부발전과 사업 수행기관인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과 두산에너지빌리티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오는 2026년 2월까지 추진되는 '발전데이터 비즈니스 개발 사업'의 첫걸음이자 발전데이터 공유 기반을 구축한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하고 2단계 사업에 들어서는 공식 행사다. 2단계 사업의 골자는 보다 고도화된 발전데이터를 클라우드를 거쳐 수요 기관에 원격으로 제공해 혁신 기술 개발을 유도하는 것으로 디지털 솔루션, 발전데이터 등을 사업화하는 '에너지 신사업 창출'이 궁극적인 목표다. 서병진 서부발전 정보기술처장은 “지난해 말 디지털 추진 전략을 수립하고 디지털 발전소, 스마트 업무 환경 구축 등 디지털 혁신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며 “고품질 발전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 기반의 서비스 모델을 발굴해 민간 부문의 성장을 견인하고 국가 디지털 전환을 선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부발전 NEWS



서부발전 노사,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금 출연

한국서부발전 노사는 지역사회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지원금을 마련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했다. 서부발전과 서부발전노동조합(위원장 유승재)은 3월 23일 충남 태안군청에서 열린 '태안군 취약계층 에너지 Dream 사업 지원금 전달식'에서 태안군에 5억5,000만원을 전달했다. 지원금에는 올해 서부발전 창립 22주년을 기념해 노사 합동으로 모금한 임직원참여기금이 포함됐다.

'태안군 취약계층 에너지 Dream' 사업은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비용 부담을 크게 느끼는 지역의 저소득가정과 소상공인을 위해 마련한 것이다.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고자 전기·가스·유류비를 우선 지급하고 보일러 교체, 단열재 보강, 사회복지 시설 LED 전등 교체, 태양광 패널 설치, 경로당 고효율 에너지 기기 도입 등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이 뒤따를 예정이다.

유승재 서부발전노동조합 위원장은 "서부발전 창립 22주년을 기념해 노사가 합동으로 모금한 기금으로 지역의 주민과 소상공인을 지원해 뜻깊다"며 "앞으로도 회사와 협심해 다양한 공헌활동을 해나가겠다"고 전했다.

박형덕 한국서부발전 사장은 "태안군의 에너지 취약계층이 즉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섬세한 지역 상생사업을 이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공공기관 안전활동 평가 2년 연속 A등급

한국서부발전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2년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A등급을 받았다. 이는 협력사 안전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인정받은 결과로 고용부는 서부발전에 대해 "안전활동과 실행력이 정착 단계에 진입하고 있고, 동일 그룹 내 안전활동 수준이 높다"고 평가했다.

고용부는 지난 2019년부터 17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찾아가는 CEO 안전컨설팅'과 'WP-안전등급제' 등 협력사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지원 활동에 높은 점수를 줬다.

서부발전은 발전 현장의 안전관리 능력을 키우기 위해 경영진 사업소 책임담당제와 CEO가 찾아가는 안전컨설팅, 무재해 포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회사는 지난해 안전컨설팅에서 도출된 현안 82건 가운데 71건을 해결했고 나머지 11건은 조치 중이다. 2022년 무재해를 달성한 협력사들에게는 총 2억8,000만원의 포상금을 수여하는 등 동기부여를 위한 지원책도 시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사장 직속 안전경영실 운영, 사업소 현장안전팀 확대, 안전전담인력 증원(2019년 80명→2022년 126명), 안전 분야 전문가 채용, 위험성평가 자격제 운영 및 전문인력풀 구성 등 다양한 안전활동을 추진한 결과 2019년 이후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함께 행복해지는 상생 실천법

'둘 이상이 서로 복돋우며 다 같이 잘 살아감'. 상생의 사전적 정의입니다.
동료들과 이웃들과 함께 잘 살아가기 위해 서부인들은 일상 속에서 어떤 실천을 하고 있나요?
일상 속 나의 상생 실천법을 인증해 주세요.

01 '나눔'으로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행복하게!

내게는 필요 없지만 누군가에게는 소중한게 쓰일 물건을 나눔 해본 적이 있나요?
별 거 아닌 것 같아도 주는 사람은 미니멀 라이프로 행복해지고, 받는 사람은 꼭 필요한 것을 대가 지불 없이 얻게 되어 둘 다 만족스러운 상생 실천법입니다.



02 상생 제품 사용하기

기업과 소비자 사이에도 상생은 존재합니다. 못생겨도 제품의 질에는 문제없는 어글리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공급하면 소비자, 농가 모두에게 이득일 뿐 아니라 버려지는 음식이 줄어 지구 환경에도 좋지요. 용기를 가져가면 저렴하게 리필해 주는 리필 샵도 사용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만족도가 높습니다. 상생 마케팅 제품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03 봉사과 재능 기부로 상생 실천하기

재능을 기부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하는 것이다'. 봉사함으로써 내가 사는 세상이 더 나아진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봉사하는 삶이야말로 나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행복을 가져다주는 상생 실천법 아닐까요.



상생 챌린지

상생 실천 인증하고 선물 받자!

참여 방법

이웃, 동료들과 상생하고자 실천하고 있는 것을 인증샷 촬영한 후 오른쪽 QR코드를 통해 구글폼에 업로드 한다.



챌린지 기간 5월 29일(월)까지 | 당첨자 발표 6월 12일(월) 한국서부발전 공식 블로그 | 경품 모바일 상품권 2만원권(5명)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서부공감> 113호, 열혈 독자분들 보세요~

하단의 퀴즈를 풀고 구글폼에 정답을 입력하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QUIZ 1

지난 4월 25일
500메가와트(MW) 규모의
천연가스발전소 착공식을 가진 지역은
어디일까요?

힌트

<WP ISSUE> 코너를 참고하세요

QUIZ 2

탄소를 배출하는 만큼
이를 흡수하는 대책을 세워
실질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개념을
무엇이라 할까요?

힌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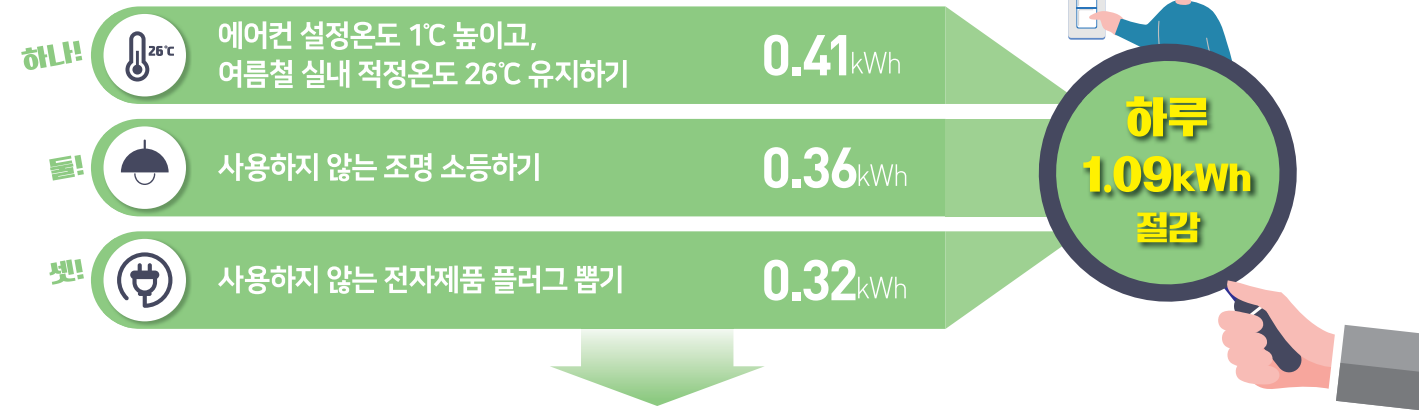
<서부공감> 113호 32쪽을 참고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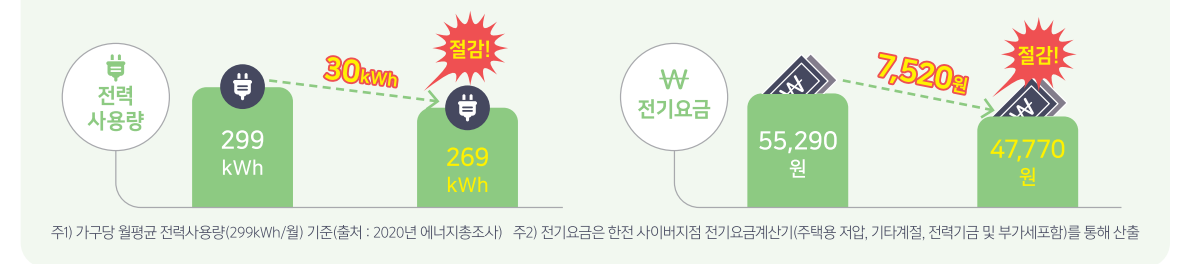
참여 방법 QR코드 찍고 구글폼에 정답 남기기 참여 기간 6월 19일(월)까지
당첨자 발표 6월 23일(금) 한국서부발전 공식 블로그
경품 커피 쿠폰(10명)

전국민 하루 1kWh 줄이기 실천요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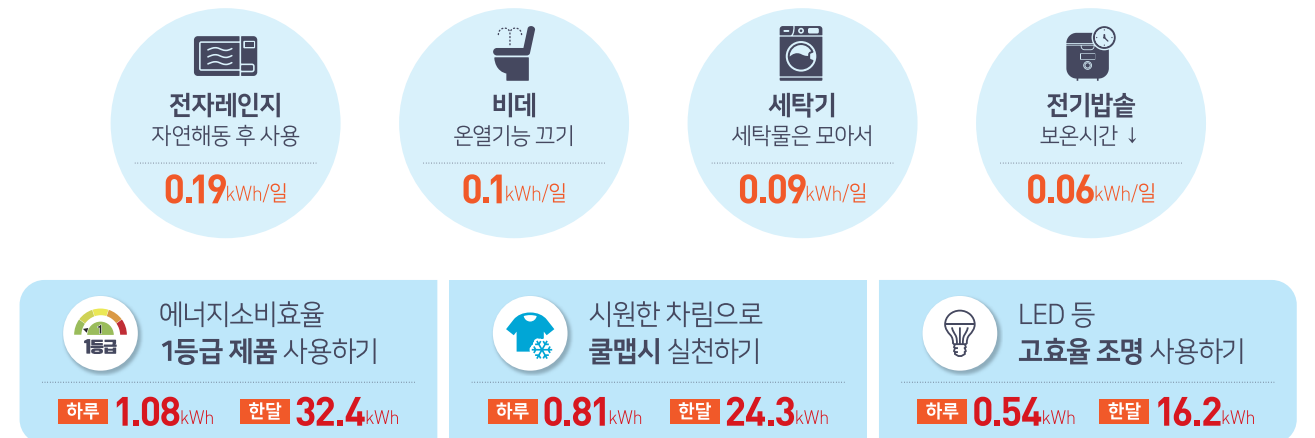
세가지만 실천해도 하루 1kWh 줄이기 성공!



하루 1kWh, 한달 30kWh 절감 → 한달 전력사용량 10%, 전기요금 14% 절감



일곱가지 더 실천하면 나도 에너지 절약 달인!





한국서부발전은 지구 환경과 동식물 그리고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해 상생의 에너지를 만듭니다.

